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22.07 [18~21]

성운은 학녹을 데리고 광주로 향하여 가다가 윤승지 님이 야간 도주(夜間逃走)하였다는 말을 듣고 놀라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분명히 태후 유경만의 해를 입었구나!” 하였다.

계속해서 중원을 향하여 가다가 계량 월낙점이라 하는 주점에 들어가 쉬고 있는데, 그 주점 사람이 모두 탄식하며 말하기를, “세상 천하에 불쌍한 사람도 많도다!” 하거늘 성운이 이상히 여겨 묻기를, “어떤 사람이 그렇게도 불쌍한가?” 하니, 그 주점 사람이 말하기를, “황도에 진상서라 하는 사람이 강남으로 귀양 갔는데, 진상 [A] 서는 귀양지에서 죽고 그 아들이 성묘 갔다가 붙들리어 황도로 올라갔다.” 라고 하였다.

성운이 그 말을 듣고 대경질색(大驚窒塞)하여 물었다. “언제쯤 이곳으로 지나갔느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어제 날 저물 때에 이곳으로 지나갔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성운이 어떻게 하더라도 그들을 따라가야겠다 싶어 학녹을 데리고 급히 쫓아갔다. 일주일을 쫓아 옹주 경수 물가에 이르렀다. 이때에 강남골 하인이 성운에게, 하인들이 진상서의 아들을 결박하여 가지고 방금 물을 건너갔다고 알려 주었다. 성운이 급히 쫓아가 붙들고 보니, 결박된 사람이 누이인 성희의 모습과 비슷하였다. 정말로 성희인 줄은 알지 못하고 우선 마음이 편치 않아 급히 달려들어 결박한 것을 풀어 주었다.

그 하인이 호령하며, “어떤 놈이기에 나라 죄인을 임의대로 풀어놓느냐?” 하면서 성운을 치려고 하자, 성운이 분개하여 칼을 빼 들고 그 하인의 머리를 베어 버렸다.

성운이 진소저 앞에 나아가니, 진소저와 연향은 정신이 아득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다가 정신을 겨우 차렸다. 진소저가 앞에 있는 사람을 보니 어릴 적 성운의 얼굴이 자라서도 명백하였다. 소저가 놀라 성운의 손을 잡고 대성통곡하면서 말하기를, “네가 성운이냐, 아니냐? 내가 네 누이라! 네 어이 나를 찾아오며 네 어이 나를 모르느냐?” 하였다.

성운 또한 그 말을 듣고 연달아 방성통곡하며 말하기를, “누님아, 누님아! 어떤 일인가? 꿈인가! 생시인가? 또 멀고 먼 강남 길에 어찌 살아 오셨는가?” 실과 같은 목숨이 하늘에 도달하여 둘이 무수히 통곡하는데, 연향이 또한 반가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성운의 소매를 잡고 슬피 통곡하니, 산천과 초목이 함께 슬퍼하는 듯하였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연나라가 침입하자, 황제에게 군사를 받은 유경만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다. 진성운은 학녹과 전쟁에 참가하고, 순경과 호원도 함께 연나라에 맞서 싸운다.

그날 밤 백구십 리를 달려 상산 땅에 다다르니, 밤이 지나 새벽이 밝아 왔다. 성운과 순경이 백마산에 올라가 형세를 살펴보니, 연나라 군사가 평원광야에 빈 데 없이 가득하였다. 성운이 순경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서편으로 쳐들어가면 나는 동편으로 쳐들어가리라.” 하고는 말을 달려 적진 중에 들어가 적진 장졸을 헤치고 삼만여

겹 포위망 속으로 들어갔다.

이때 호원은 창을 들고 오는 창검을 막고 섰는데, 동편으로 뇌성벽력(雷聲霹靂) 같은 소리가 나더니 기치(旗幟)와 창검이 일시에 쓰러지고 제장과 군졸이 사면으로 분주하여 서로 밟혀 죽으며, 군마(軍馬)의 시끄러운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문득 일원대장이 장창을 비껴들고 나타났다. 호원이 황망 중에 살펴보니 수기(手旗)에 글이 쓰였으며 ‘대장군 대원수 진성운’이라 하였다. 호원이 깜짝 놀라며 반겨 외쳤다. “호원을 살려 주소서.” 하니, 성운이 즉시 호원을 데리고 나가려 할 때, 문득 서편으로 풍진이 일어나더니 기치창검(旗幟槍劍)이 또 일시에 쓰러지며 일원대장이 들어왔다. 호원이 또 살펴보니 이는 순경이었다. 더욱 반가워하며, “어찌 그리 더디 오는가?” 하였다. 성운과 순경이 장수 삼만여 겹을 헤치고 나와 백마산 위에 호원을 두고 다시 내려왔다. 성운과 순경이 말을 재촉하여 적진 중에 다시 들어 동서로 마구 치니, 순식간에 사백만 군졸을 거의 모두 죽였다. 월성덕이 장대(將臺)에서 보다가 망천탄식(望天歎息)해 말하기를, “삼백만 군졸을 하루아침에 함몰(陷沒)시키고 무슨 면목으로 고국에 돌아가겠는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고 칼을 들어 자결했다.

이에 공손걸과 유경만이 갈 바를 모르고 앉아 탄식하는데, 이때 성운과 순경이 장대에 올라 공손걸의 머리를 베어서는 깃대에 달고 군중을 호령하니, 남은 장수들이 흩어져 있는 군사를 거두어 와서 항복하였다. 성운이 다 죽이지 아니하고 예로 대접하니, 모든 적장과 군졸이 다 즐거워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것 같았다.

성운이 또한 유경만을 잡아다가 앞에 꿇리고 죄를 낱낱이 말하면서, “너는 어떻게 생긴 놈으로 간사하게 천자에게 참소(讒訴)하여 내 부친을 무슨 탓으로 강남에 귀양 보내어 죽게 하였는가? 원수를 만분지일이라도 갚아야겠다.” 라고 하였다.

- 작자 미상, 「진성운전」 -



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역전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있다.
- ②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서술 시점의 변화를 통해 인물이 지닌 초월적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성운은 윤승지 닥의 불행이 유경만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 ② 주점 사람은 중원으로 향하던 진성운의 목적을 알아차렸다.
- ③ 강남골 하인은 진성운을 보고 진상서의 아들임을 알아보았다.
- ④ 호원은 순경이 적진에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 ⑤ 월성덕은 연나라 군대가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진성운전」은 진성운의 영웅적 일대기를 다룬 작품이다. 진성운은 어린 시절 가족과의 이산, 기아 등의 고난을 겪지만, 능력을 길러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다.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원수이자 나라를 배신한 적대자를 징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주인공 외에 여러 영웅이 등장한다. 이들은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싸우는데, 위험에 처하면 서로 도우며 국난을 함께 극복해 나간다.

- ① 진성운과 순경이 연나라 군사를 함몰시키는 것을 보니,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영웅들의 활약상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진성운과 성희가 서로를 확인하며 통곡하는 것을 보니, 진성운이 어릴 때 가족 이산의 고통을 겪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진성운이 적들의 항복을 받고 유경만을 잡아 죄를 물은 것을 보니, 국난을 극복하면서 개인적인 원한도 갚게 되었다고 할 수 있군.
- ④ 유경만이 연나라의 패배를 탄식하는 것을 보니, 진성운의 적대자인 유경만은 진상서를 참소한 것을 후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적진에 둘러싸인 호원이 진성운에게 살려 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영웅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4.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성운이 위험에 처한 누이를 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 ② 연향이 숨겨둔 흔적을 진성운이 찾게 되는 이유가 된다.
- ③ 학죽이 진성운에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동기가 된다.
- ④ 떠돌던 진성운이 세상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원인이 된다.
- ⑤ 누이가 강남에서 겪은 일을 진성운이 재확인한 단서가 된다.



<보기>

「진성운전」은 진성운의 영웅적 일대기를 다룬 작품이다. 진성운은 어린 시절 가족과의 이산, 기아 등의 고난을 겪지만, 능력을 길러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다.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원수이자 나라를 배신한 적대자를 징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주인공 외에 여러 영웅이 등장한다. 이들은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싸우는데, 위협에 처하면 서로 도우며 국난을 함께 극복해 나간다.

✓ 읽기 전 활동

진성운전은 말 그대로 ‘진성운’의 영웅적 일대기를 다룬 소설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성운은 어린 시절 고난을 겪고 능력을 길러 나라를 구하는 전형적인 영웅소설의 주인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원수가 곧 나라의 원수가 되는 영웅소설의 전형적인 특징 또한 드러나고, 이를 진성운이 징계하는 해결 방식 또한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외침을 물리치기 위해 싸우는 인물이 진성운 혼자가 아니라 여러 영웅이 등장한다는 점은 작품의 독창성으로 볼 수있겠습니다.

성운은 학녹을 데리고 광주로 향하여 가다가 윤승지 님이 야간 도주(夜間逃走)하였다는 말을 듣고 놀라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분명히 태후 유경만의 해를 입었구나!” 하였다.

계속해서 중원을 향하여 가다가 계량 월낙점이라 하는 주점에 들어가 쉬고 있는데, 그 주점 사람이 모두 탄식하며 말하기를,

“세상 천하에 불쌍한 사람도 많도다!”

하거늘 성운이 이상히 여겨 묻기를,

“어떤 사람이 그렇게도 불쌍한가?”

하니, 그 주점 사람이 말하기를,

“황도에 진상서라 하는 사람이 강남으로 귀양 갔는데, 진상서는 귀양지에서 죽고 그 아들이 성묘 갔다가 불들리어 황도로 올라갔다.”

라고 하였다.

성운이 그 말을 듣고 대경질색(大驚窒塞)하여 물었다.

“언제쯤 이곳으로 지나갔느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어제 날 저물 때에 이곳으로 지나갔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성운이 어떻게 하더라도 그들을 따라가야겠다 싶어 학녹을 데리고 급히 쫓아갔다. 일주일을 쫓아 웅주 경수 물가에 이르렀다. 이때에 강남골 하인이 성운에게, 하인들이 진상서의 아들을 결박하여 가지고 방금 물을 건너갔다고 알려 주었다. 성운이 급히 쫓아가 붙들고 보니, 결박된 사람이 누이인 성희의 모습과 비슷하였다. 정말로 성희인 줄은 알지 못하고 우선 마음이 편치 않아 급히 달려들어 결박한 것을 풀어 주었다.

그 하인이 호령하며,

“어떤 놈이기에 나라 죄인을 임의대로 풀어놓느냐?”

하면서 성운을 치려고 하자, 성운이 분개하여 칼을 빼 들고 그 하인의 머리를 베어 버렸다.

성운이 진소저 앞에 나아가니, 진소저와 연향은 정신이 아득

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다가 정신을 겨우 차렸다. 진소저가 앞에 있는 사람을 보니 어릴 적 성운의 얼굴이 자라서도 명백하였다. 소저가 놀라 성운의 손을 잡고 대성통곡하면서 말하기를,

“네가 성운이냐, 아니냐? 내가 네 누이라! 네 어이 나를 찾아오며 네 어이 나를 모르느냐?”

하였다.

성운 또한 그 말을 듣고 연달아 방성통곡하며 말하기를,

“누님아, 누님아! 어쩐 일인가? 꿈인가! 생시인가? 또 멀고 먼 강남 길에 어찌 살아 오셨는가?”

실과 같은 목숨이 하늘에 도달하여 둘이 무수히 통곡하는데, 연향이 또한 반가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성운의 소매를 잡고 슬피 통곡하니, 산천과 초목이 함께 슬퍼하는 듯하였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윤승지 님이 야반도주 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성운은 ‘유경만’의 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를 통해 태후 ‘유경만’은 악인임을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진성운이 우연한 계기를 통해 ‘진소저’와 ‘연향’을 다시 만나 <보기>에서 언급한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인물 관계는 ‘진소저’는 진성운의 누이인 ‘성희’이고, ‘연향’은 누구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을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연나라가 침입하자, 황제에게 군사를 받은 유경만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다. 진성운은 학녹과 전쟁에 참가하고, 순경과 호원도 함께 연나라에 맞서 싸운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보기>에서 언급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데, 유경만이 황제에게 군사를 받아 외적을 물리치러 나가지만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이를 <보기>의 내용과 같이 생각해 본다면 ‘나라를 배신한 적대자’가 유경만으로, 유경만은 악인임을 짐작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유경만의 항복 이후 진성운이 출전하는데, <보기>에서 언급했듯 학녹, 순경, 호원과 같은 여러 영웅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심화적 독해 태도

[중략 부분의 줄거리]가 꽤나 중요한 소설입니다. 중략 부분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중략 부분임에도 굳이 ‘줄거리’를 제공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가 중요한 부분이기에 생략하지 못했음을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 백구십 리를 달려 상산 땅에 다다르니, 밤이 지나 새벽이 밝아 왔다. 성운과 순경이 백마산에 올라가 형세를 살펴보니, 연나라 군사가 평원광야에 빈 데 없이 가득하였다. 성운이 순경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서편으로 쳐들어가면 나는 동편으로 쳐들어가리라.”

하고는 말을 달려 적진 중에 들어가 적진 장졸을 헤치고 삼만여 겹 포위망 속으로 들어갔다.

이때 호원은 창을 들고 오는 창검을 막고 섰는데, 동편으로 뇌성벽력(雷聲霹靂) 같은 소리가 나더니 기치(旗幟)와 창검이 일시에 쓰러지고 제장과 군졸이 사면으로 분주하여 서로 밟혀 죽으며, 군마(軍馬)의 시끄러운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문득 일원대장이 장창을 비껴들고 나타났다. 호원이 황망 중에 살펴보니 수기(手旗)에 글이 쓰였으며 ‘대장군 대원수 진성운’이라 하였다. 호원이 깜짝 놀라며 반겨 외쳤다.

“호원을 살려 주소서.”

하니, 성운이 즉시 호원을 데리고 나가려 할 때, 문득 서편으로 풍진이 일어나더니 기치창검(旗幟槍劍)이 또 일시에 쓰러지며 일원대장이 들어왔다. 호원이 또 살펴보니 이는 순경이었다. 더욱 반가워하며,

“어찌 그리 더디 오는가?”

하였다. 성운과 순경이 장수 삼만여 겹을 헤치고 나와 백마산 위에 호원을 두고 다시 내려왔다. 성운과 순경이 말을 재촉하여 적진 중에 다시 들어 동서로 마구 치니, 순식간에 사백만 군졸을 거의 모두 죽였다. 월성덕이 장대(將臺)에서 보다가 망천탄식(望天歎息)해 말하기를,

“삼백만 군졸을 하루아침에 함몰(陷沒)시키고 무슨 면목으로 고국에 돌아가겠는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고 칼을 들어 자결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외적을 처리하기 위해 군을 출전한 성운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영웅 소설의 특징상 ‘어떻게’ 보다는 ‘그냥’ 적을 처리하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마찬가지로 너무 자세하게 읽을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성운, 순경이 호원을 구출하고 적병 삼백만을 모두 처리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에 공손걸과 유경만이 갈 바를 모르고 앉아 탄식하는데, 이때 성운과 순경이 장대에 올라 공손걸의 머리를 베어서는 깃대에 달고 군중을 호령하니, 남은 장수들이 흩어져 있는 군사를 거두어 와서 항복하였다. 성운이 다 죽이지 아니하고 예로 대접하니, 모든 적장과 군졸이 다 즐거워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것 같았다.

성운이 또한 유경만을 잡아다가 앞에 꿇리고 죄를 낱알이 말하면서,

“너는 어떻게 생긴 놈으로 간사하게 천자에게 참소(讒訴)하여 내 부친을 무슨 탓으로 강남에 귀양 보내어 죽게 하였는가? 원수를 만분지일이라도 갚아야겠다.”

라고 하였다.

-작자 미상, 「진성운전」-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삼백만 군졸을 쓸어버리고 적장이 자살해버리자 갈 곳이 없어진 공손걸과 유경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중 공손걸의 정체는 목이 잘리는 것으로 보아 유경만과 같은 악인으로 추측 가능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설은 주인공 외에 등장하는 인물이 많아 고역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당장 파악이 안되는 인물이라면 일단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경만을 붙잡은 성운이 아버지의 원수인 유경만을 꾸짖고 있음이 드러나는데, <보기>에서 말했듯 유경만은 반역자이자 아버지의 원수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작품 총평

고전소설, 특히나 영웅 소설의 경우 내용이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큰 틀을 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잘 드러내주는 소설입니다. 주요한 인물들의 관계, 그리고 사건의 전개 방향성만 파악한다면 해석에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⑤

① 시간의 역전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있다.

→ 시간의 역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간은 소설 내내 순행적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②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인물의 외양묘사가 드러나지 않을뿐더러, 인물의 성격 변화 또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영웅 소설의 경우 인물의 성격 변화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안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③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고 있다.

→ 꿈과 현실의 교차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작중 인물이 꾸는 꿈의 내용이나 꿈을 꾸다는 서술이 없다는 점을 알고 빠르게 넘기면 되겠습니다.

④ 서술 시점의 변화를 통해 인물이 지닌 초월적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 서술 시점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성운전은 항상 전지적 작가 시점임을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⑤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서술자가 ‘산천과 초목이 함께 슬퍼하는 듯하였다.’라며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입을 통해 재회한 남매의 마음을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 또한 알 수 있겠습니다.



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①

① 진성운은 윤승지 닥의 불행이 유경만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 진성운은 윤승지 닥이 ‘야간 도주’를 하게 만든 불행이 ‘태후 유경만의 해’를 입어 발생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② 주점 사람은 증원으로 향하던 진성운의 목적을 알아차렸다.

→ 주점 사람은 증원으로 향하던 진성운의 목적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저 주점에서 이야기하던 도중 진성운이 대화에 참가한 것입니다.

③ 강남골 하인은 진성운을 보고 진상서의 아들임을 알아보았다.

→ 강남골 하인은 진성운을 보고 진상서의 아들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았다면 “어떤 놈이기에”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④ 호원은 순경이 적진에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 호원은 순경이 적진에 늦게 도착했다고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더욱 반가워하며’를 통해 이를 문제삼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그리 더디오는가”만 보고 책임을 물었다고 판단하는 오판을 저질러서는 안되겠습니다.

⑤ 월성덕은 연나라 군대가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 월성덕은 군대가 패배했음을 인정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다며 자결합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④

<보 기>

「진성운전」은 진성운의 영웅적 일대기를 다룬 작품이다. 진성운은 어린 시절 가족과의 이산, 기아 등의 고난을 겪지만, 능력을 길러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다.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원수이자 나라를 배신한 적대자를 징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주인공 외에 여러 영웅이 등장한다. 이들은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싸우는데, 위협에 처하면 서로 도우며 국난을 함께 극복해 나간다.

① 진성운과 순경이 연나라 군사를 함몰시키는 것을 보니,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영웅들의 활약상을 확인할 수 있군.

→ 진성운과 순경은 ‘순식간에 사백만 군졸을 거의 모두 죽’입니다. 이를 통해 영웅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활약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② 진성운과 성희가 서로를 확인하며 통곡하는 것을 보니, 진성운이 어릴 때 가족 이산의 고통을 겪었음을 알 수 있군.

→ 성희는 ‘앞에 있는 사람을 보니 어릴 적 성운의 얼굴이 자라서도 명백’하다며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둘의 관계가 어릴 적 헤어진 가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③ 진성운이 적들의 항복을 받고 유경만을 잡아 죄를 묻은 것을 보니, 국난을 극복하면서 개인적인 원한도 갚게 되었다고 할 수 있군.

→ 진성운이 적들의 항복을 받아내고 유경만에게 “원수를 만분지일이라도 갚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함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국난의 극복이 곧 아버지의 원수 해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④ 유경만이 연나라의 패배를 탄식하는 것을 보니, 진성운의 적대자인 유경만은 진상서를 참조한 것을 후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유경만이 연나라의 패배를 탄식하는 것은 조국을 배신하고 연나라의 편에 섰으나, 연나라가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경만이 진상서를 참조하는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님을 드러냅니다.

⑤ 적진에 둘러싸인 호원이 진성운에게 살려 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영웅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적진에 둘러싸인 호원이 “호원을 살려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다른 영웅에게 위기 해결을 위해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①

① 진성운이 위협에 처한 누이를 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 진성운이 주점 사람의 말을 듣고 진상서의 아들이 붙들려서 황도로 올라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는 누이가 위협에 처한 것으로, 진성운은 주점 사람에게 정보를 물어본 후 바로 붙들린 누이를 구하기 위해 뒤를 쫓습니다.

② 연향이 숨겨둔 흔적을 진성운이 찾게 되는 이유가 된다.

→ 아무 관련 없는 선지입니다. 연향이 숨겨둔 흔적이 없다는 점을 알고 빠르게 넘겨야 하겠습니다.

③ 학녹이 진성운에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동기가 된다.

→ 학녹의 능력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진성운이 직접 쫓아가 누이를 되찾았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④ 떠돌던 진성운이 세상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원인이 된다.

→ 진성운은 떠돌지 않고 광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사에 대한 관심이 없다가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⑤ 누이가 강남에서 겪은 일을 진성운이 재확인한 단서가 된다.

→ 누이가 강남에서 겪은 일을 진성운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누이가 잡혀 올라갔다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